

# 재정 신속집행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시, 신속집행 55.5% 정부목표 높은 63% 목표액 설정

군산시가 재정신속집행에서 55.5%의 정부목표보다 높은 63%로 목표액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예산에 대해 신속집행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신속집행 보고회



군산시가 재정신속집행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실시한다. 사진은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갖고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6,088억 중 3,834억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80여명은 일자리 및 대규모 사업을 중심의 집행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산시는 신속집행 효과가 지역경제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희망근로 및 노인 일자리사업,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해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월 재정 신속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선구적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8년도 신속집행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7,800만원을 확보하는 추진성과를 보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문화정책분야 공약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정책 분야 공약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2,060여건의 공약사업을 수

집,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정책 분야 공약을 종합평가한 결과 군산시가 한국문화가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7기 군산시는 지역의 문화 정책 발굴, 확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한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한국문화가치대상 수상으로 군산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에게도 우수한 정책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공립기관 소속 영양교사 대상 전문교육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관내 교육지원청 및 공립기관 소속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쌀 식문화 및 영양적 가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볶음쌀국수, 까르보나라 쌀떡볶이 등 쌀 가공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실습으로 이뤄졌다.

홍인기 호원대 외식조리학부 교수는 학교와 단체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쌀 요리 레시피를 전수해 참여한 영양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건강한 쌀조청의 효능을 이해하고 시연된 요리를 시식하며 단체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와 토의도 진행됐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영양교사를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산쌀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증진과 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해 1월 여성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와 오는 4월 관내 국립 초등학교 4회, 10월에는 영양교사 대상 2회 등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농촌지역 주민 건강

### 증진 한방 순회 진료

익산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한방 순회 진료는 오는 3월 4일 함리면 신촌보건진료소를 시작으로 신성(황등면)·신석(오산면)·대제(삼기면)·성내(황등면)·상발(왕궁면)·하제(응포면)·연동(삼기면)·태성(여산면)·두동(성당면)·소대(응포면)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순회 진료에서는 한방진료(침, 한약제제, 한방파스 제공 등)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뉴시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공당보리축제 성공을 위해 한국예총 군산지회 업무협약 체결했다.

## '공당보리축제' 성공을 위해

군산농기센터, 한예총 군산지회와 협약

백일장·미술·사진촬영 등 제공키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제14회 군산공당보리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산시와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에서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해당분야별로 기획, 실행, 심사 등 전 과정에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축제부터는 한국예총 군산지회와 산하 예술단이 축제에 대거 참여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것으로 기대된다.

예총 군산지회에서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은 공당보리축제를 주제로 한 ▲백일장 대회 ▲미술대회 ▲사진촬영 콘테스트 ▲품바공연 및 각설이타령 ▲군산농악공연 등으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즐기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올해 공당보리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는 물론 성공적인 시민참여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스타트

군산시가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생활민방위 교육 동영상 시청한 후, 김혜정 전북 교통문화연구소 강사의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으로 노년층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관내 어르신 5,049명(연중사업 참여자 622명 포함)이 참여할 예정이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외 8개 민간 수행기관 및 27개 읍면동에서 공익활동, 시정형, 인력 파견형 등 57개 사업이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안전대진단 추진

군산시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24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019 국가안전점검기간 동안 관내 급경사지 88개소와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공공시설 3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결과 시설물의 위험정도 및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보완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